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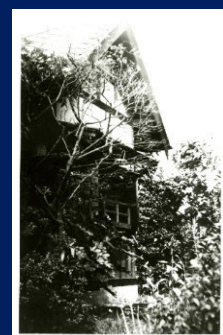
사쿠타로와 ‘디자인’

‘서적의 표지 디자인 취미는 회화의 액자나 족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명백한 예술의 ‘연속’이 아닌가.’(‘표지 디자인의 의의’)

하기와라 사쿠타로는 자기 저서의 표지 디자인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습니다. “달에게 짓다” 외에도 판화가인 ¹ 온치 고시로, ² 가와카미 스미오 등이 디자인한 책과 자신이 디자인한 서적 등 수많은 아름다운 서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디자인에 신경 쓴 가구와 마크 외에도 뽀족한 지붕이 특징인 모던한 자택을 직접 설계하는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미의식을 관철했습니다.

*1 온치 고시로 (1891~1955 판화가·표지 디자이너·사진가·시인. 사쿠타로의 시집 “달에게 짓다” 등을 디자인)

*2 가와카미 스미오 (1895~1972 판화가. 사쿠타로의 단편소설 “고양이 마을”에서는 표지화·삽화를 그림)



“정본 우울한 고양이” 표지(고양이 그림은 사쿠타로가 그렸다)
“허망의 정의” 표지(까마귀 마크는 사쿠타로가 고안)
사쿠타로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복원품 마에바시 문학관 소장)
세타가야구 다이타의 집(사쿠타로가 직접 설계한 집)